

KIA 최희섭 4억 연봉 재계약

김상현 2억4천만원·김원섭 1억7천만원에 도장

KIA 타이거즈의 '미계약 3인방' 최희섭·김상현·김원섭이 연봉 도장을 찍었다.

KIA 최희섭은 15일 2억원보다 100% 인상된 4억원에 재계약을 끝냈다. 김상현도 5천2백만원에서 1억8천8백만원(361.5%) 인상된 2억4천만원, 김원섭은 9천만원에서 8천만원 인상된(인상률 88.9%) 1억7천만원에 연봉협상을 마무리 했다.

전날 장성호와 극적으로 FA 계약을 체결했던 KIA는 '은퇴의사'까지 내비치며 대립했던 최희섭과도 계약을 끝내며 2010년봉 대상자 56명과의 재계약을 완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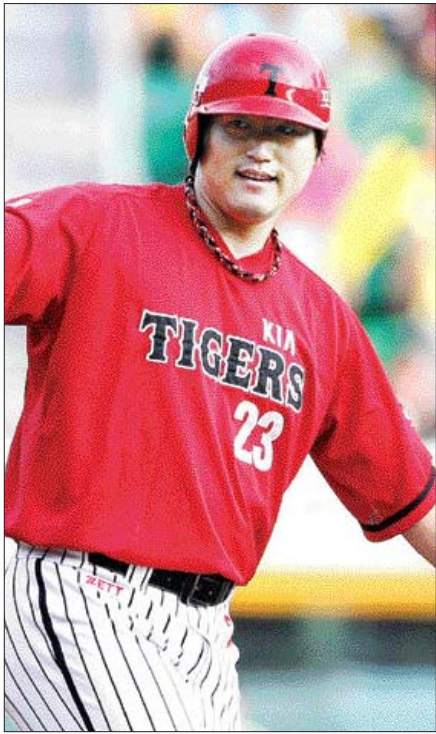
이날 계약으로 최희섭은 팀내 역대 최고 인상액(2억원)의 주인공이 됐다. 최희섭은 지난해 2008시즌 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연봉을 백지 위임하며 1억5천만원이 대폭 삭감됐었다.

김상현은 361%에 달하는 인상률을 작성하며 팀내 최고 기록을 다시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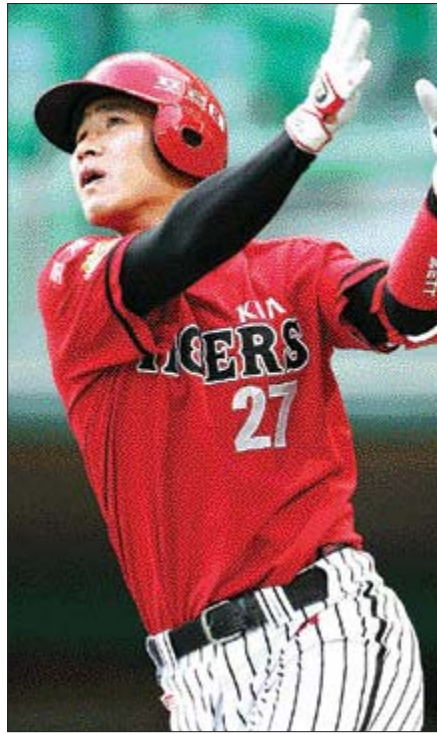
기존 최고 인상액은 앞서 유동훈이 기록한 1억2천만원이고 최고 인상률은 나지완·신용운·이상화가 가지고 있는 200%다.

구단의 처우에 불만을 품고 구단과 대립각을 세웠던 최희섭은 "계약이 마무리되었으니 모든 것을 훌훌 털고 최선을 다해 올 시즌 한국시리즈 2연패를 달성하겠다. 이를 통해 팬들에게 기쁨을 드리겠다"고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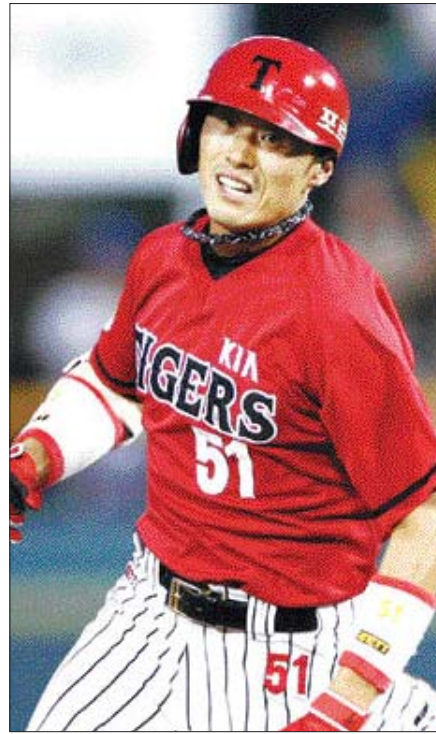
한화 류현진이 가지고 있는 프로야구 역대 최고인상률(400%)을 요구했던 김상현



최희섭



김상현



김원섭

은 361% 인상안을 받아들였다. 2009시즌 각종 시상식을 석권한 김상현은 "더 큰 목표를 위해 전진하는 김상현의 모습을 보여 주겠다"며 "한 해 반짝인 선수로 기억되기는 싫다. 자만하지 않고 지난해보다 더 많은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최희섭은 지난 시즌 타율 0.308, 98득점 100타점 33홈런, 김상현은 타율 0.315, 77득

점 127타점 36홈런을 기록했다. 군산 끝내기 역전 만루홈런의 주인공 김원섭도 선전을 다짐했다.

김원섭은 지난 시즌 0.301의 타율, 74득점 8홈런 43타점을 기록하며 8천만원 인상된 연봉에 계약했다.

김원섭은 2년 연속 3할 타율과 100% 수비율을 자랑하며 2009시즌 테이블 세터로

만점협약을 펼쳤다. 특히 만성간염을 갖고 만들어진 활약인 만큼 더욱 가치있다.

김원섭은 "올 시즌 팀의 외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선 목표는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이다"며 "지난해에 비해 더 많은 홈런을 기록하고 싶고 전경기에 출장하는 기록에도 도전하겠다"고 목표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새처럼 날다

15일(한국시간) 미국 유타주 파크시티의 디어밸리 리조트 계곡에서 열린 2010 FIS 프리스타일 스키 월드컵 대회 경기에 앞서 중국의 칭칭이 공중곡예에 연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정무 감독 "월드컵 마치면 그만 둔다"

"월드컵 이후를 생각해본 적이 없다. 좋은 분들이 계속해야 하고 실제로 윤곽이 정해져 있지 않은가. 월드컵 이후에는 성적과는 무관하게 대표팀을 떠날 생각이다."

허정무 축구대표팀 감독은 15일(한국시간) 남아공 전지훈련을 마감하는 결산 인터뷰에서 2010 남아공 월드컵에서 한국이 16강 이상의 성적을 내려라도 사령탑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대표팀 감독으로 참가하는 처음이자 마지막 월드컵이 될 남아공 대회에서 배수진을 치고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 목표에 올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허정무 감독은 현지 적응에 초점을 뒀



던 전지훈련 성과에 만족하면서 월드컵 본선 최종 엔트리 23명을 확정하기 위한 '육식 가리기'를 계속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지난 5일 월드컵 기간 베이스캠프인 남아공 투스텐버그(해발 1천233m)에 도착해 고지대에 적응을 겸한 답글질을 해왔던 대표팀은 세 차례 평가전에서 1승1무1패의 성적표를 받았고 이날 이후 2차 전지훈련 장소인 스페인 말라가로 떠났다.

연합뉴스

생활 게시판

화촉

▲배백원(성용실업 대표)·박경자씨 장남 차성(모아건설)군 서영현(전 화순군 의회의원)·김복남씨 삼녀 후형양=16일(토) 오후 1시 농성동 메리이트 웨딩홀 1층(사파이어홀)

▲공일용·김정희씨 장남 동연군 이운복·양동숙씨 장녀 수영양=16일(토) 오후 2시 광주경복궁웨딩컨벤션 1층(경복궁홀)

▲최찬수·신금순씨 장남 봉관군 이효돈·최양자씨 막내 경량양=17일(일) 오전 11시40분 광주경복궁웨딩컨벤션 1층(고운홀)

▲안중일(전 광주시 교육감)·김인수씨 아들 선욱군 방기환·성만여씨 딸 명주양=17일(일) 오후 1시 상무 리츠컨벤션웨딩홀(1층)

무덤

▲국성환씨 별세 중관(기아자동차)·중

덕(자영업)·순임·순녀·금님·순호씨 부친상 김재환·이재욱·정성두(전대병원 총무과)·김순호(서울시공무)·윤영선(소방공무원)씨 빙부상=발인 16일(토)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이명숙씨 별세 노연성·연우씨 모친상=발인 16일(토) 화동 금호 장례식장 401호. 062-227-4000.

▲박명순씨 별세 강영식·영철·영순씨 모친상=발인 17일(일) 화동 금호 장례식장 특실 301호. 062-227-4000.

▲정동순씨 별세 조수근·윤근·숙진·효순·효남·수미씨 모친상=발인 17일(일) 화동 금호 장례식장 201호. 062-227-4000.

CBS 광주 CBS TV 광진

영·혼을 사로잡는 힘

▶ **방송 시간** ▶ **케이블 TV** ▶ **방송 시간** ▶ **4주 10회** ▶ **시상권 50%** ▶ **방송 4년**

광주CBS가 영·혼을 사로잡는 힘을 더해 행복을 전합니다.

광주CBS방송국 376-8507

▶ **광주** ▶ **전남** ▶ **전북** ▶ **전라** ▶ **충청** ▶ **경남** ▶ **경북** ▶ **대구** ▶ **부산** ▶ **서울** ▶ **인천** ▶ **경기** ▶ **강원** ▶ **충청** ▶ **경남** ▶ **경북** ▶ **대구** ▶ **부산** ▶ **서울** ▶ **인천** ▶ **경기** ▶ **강원**